

보도시점 2026. 5. 12.(화) 13:30 배포 2026. 5. 12.(화) 09:00
(2026. 5. 13.(수) 조간)

과기정통부, 국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현장 점검

- 제조·물류·매장관리 등 국산 AI반도체 활용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화) 포스코 DX 판교사무소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딥엑스를 방문하여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공급·수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 데이터센터 등 서버급 AI반도체와 달리 개별 기기(디바이스)에 탑재(엣지)되는 AI반도체로서 처리 지연과 전력소모가 낮고 보안성이 우수한 특성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30일 서버급 AI반도체 활용 현장인 SK텔레콤(리벨리온社 AI반도체 활용 현장)과 LG AI 연구원(퓨리오사AI社 AI반도체 활용 현장) 방문에 이어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찾은 것으로, 이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반도체 역시 그 간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성과들이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먼저, 포스코 DX 판교사무소는 포스코 DX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용 제어 시스템인 포스마스터(PosMaster)에 모빌린트社의 AI반도체(Aries 등)를 활용하는 현장이다. 포스코 그룹의 기존 스마트공장에 AI반도체를 적용하여 지능형 공장(Intelligent Factory)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로봇, 물류, 산업 안전 등 포스코 그룹의 주요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어,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제조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린트社는 포스코 DX와 포스코 기술투자가 함께 조성한 기업형 벤처캐피탈(VC)을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요처(대기업)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방문한 딥엑스는 작년 8월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인 ‘DX-M1’ 양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8개 국가에서 총 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동 중인 상황에서도 버터가 녹지 않는 초저전력 AI반도체를 시연하며 올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장 점검 이후 개최된 공급·수요기업 간담회에서는 각 기업 별 AI반도체 활용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앞으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저지연·저전력 온디바이스 AI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우수한 경쟁력과 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면서, “이제 곧 본격 성장할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국산 AI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용 (044-202-6230)
		담당자	사무관	손희수 (044-202-6232)